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사회문제 해결하는 ‘돕는AI’ 활용법

카카오임팩트 ‘돕는AI 컨퍼런스 2025’

AI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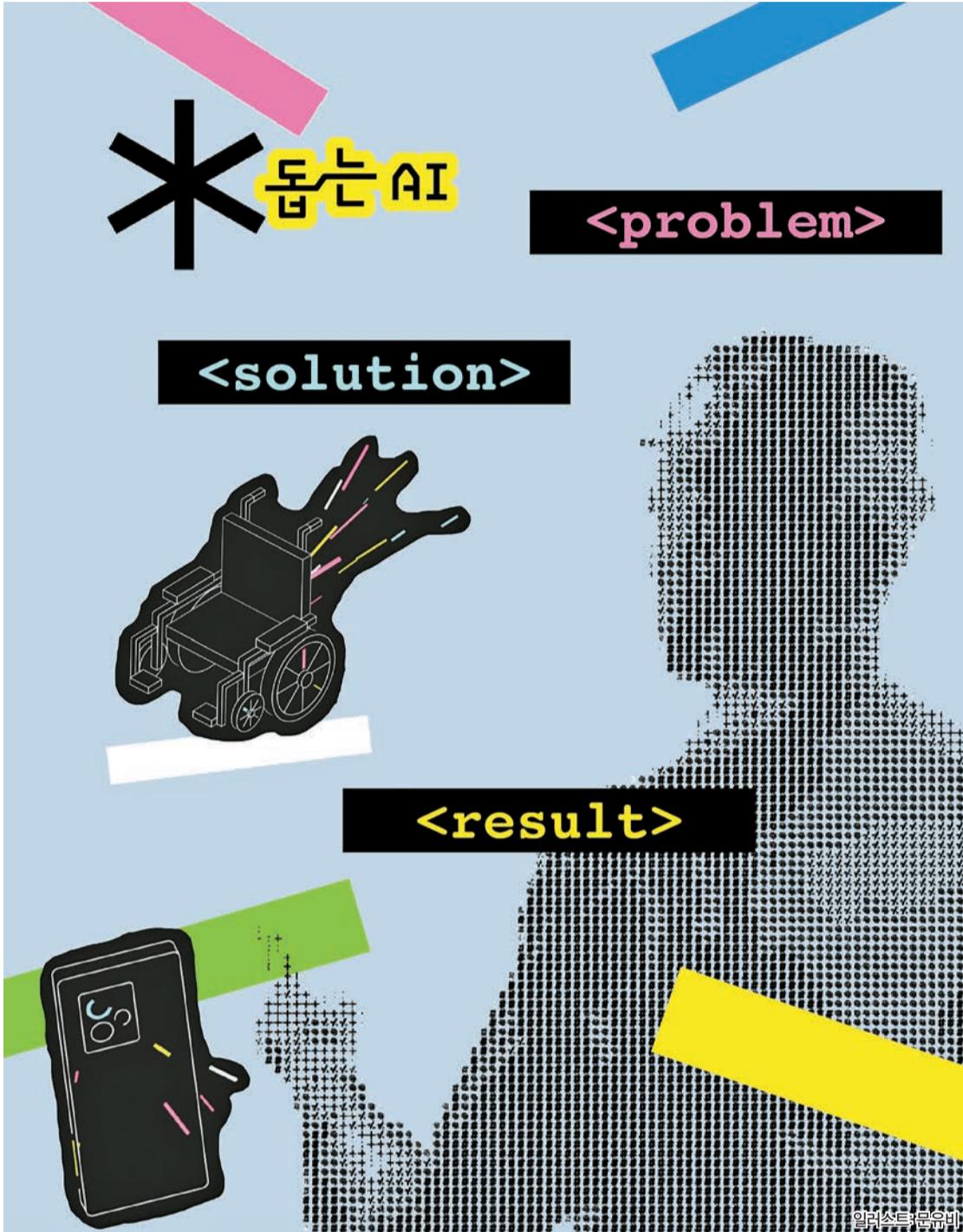
인공지능(AI)의 진화는 더 이상 기술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심리·교육·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AI는 사람을 대신하기보다 사람을 돋는 ‘동반자’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돕는기술’ ‘돕는AI’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요구와도 맞물린다. 기후위기, 고령화, 정신건강 악화 등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의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요국에서도 AI로 인간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문제해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까’라는 질문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카카오의 공익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지난달 25~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돕는 AI 컨퍼런스’를 통해 ‘AI 네이티브 소셜 임팩트(AI-Native Social Impact)’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AI 네이티브 소셜 임팩트는 첨단기술 활용이 제한적 이던 보건복지·환경 등 공익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현상을 말한다.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의 방향이 성능 경쟁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옮겨가는 지금, 이른바 ‘돕는AI’는 의료 현장의 의사 판단을 돋고, 전문 심리상담을 학습하고, 유기동물과 새 보호자를 연결하면서 돌고래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모두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돕는AI 생태계’가 확장되려면 사회적 상상력과 정책적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돕는AI는 단기적으로는 전문가의 보조자로, 장기적으로는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회문제 해결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작은 기술이라도 선하게 쓰이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출발한 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기술을 어



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구에서 동료로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까요.”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부교수는 AI 활용 개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생성형AI 모델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사람 같은 에이전트가 나온다

고 해도 AI에 결여된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은 인간의 영역이며, 이러한 질문이 AI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문제의식과 질문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돋는 기술을 만들 수 있고, AI는 동료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청진기 대신, AI를 손에 쥔 의사들’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하다. AI는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도울 수 있도록 확장하는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 현장의 의사는 AI로 환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심리 상담 전문가는 내담자와 깊이 있는 대화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고, 학교 현장의 교사는 교육의 질을 극대화한다.

기술의 임계치는 이미 낮아졌다. 비영리 AI연구 기관인 METRO에 따르면,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는 7개월마다 2배씩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 인간이 직접 수행했을 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을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질문과, 사람과 AI를 잇는 현장 설계다.

이른바 ‘돕는AI’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현장은 의료 분야다. 카로티드AI(Carotid,AI)는 스마트 폰으로 뇌졸중 위험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다. 카로티드AI를 만든 건 허준녕 연세대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조교수다.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됐다. 뇌졸중은 치명률 3위로 정도로 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다.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오면 1분에 200만개의 뇌세포가 죽어 나간다.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동맥 협착은 무증상이라 스스로 진단 할 방법이 없다. 허준녕 교수는 “검진센터에서 CT나 MRI, 초음파로 살펴야 하는 데 비용이 비싸고 번거롭기 때문에 검진을 미루다가 결국 뇌경색을 맞는다”며 “간단하고 저렴하게 경동맥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즉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상잡음을 스마트폰 마이크와 AI 기술로 판단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경동맥이 지나는 목에 대고 소리를 녹음했고, 협착 환자의 녹음 파일과 비교했다. 확연히 구분됐다. 임상연구를 위해 총 85명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 모델을 만들어 검증했다. 그 결과 정상과 협착 환자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국제의학저널에 게재되며 검증도 거쳤다. 허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급성 치료에 AI 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 까지 수많은 확인을 거쳐야하는데 AI와 함께하면 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3면 ‘돕는AI 컨퍼런스’로 계속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눔의 기록… ‘더기버스50’ 4차 명단 공개

‘더기버스50’ 4차 10명 선정

파워워크 참여단체 23곳 후보 추천

주거·의료·아동·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이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50)의 네 번째 명단에 올랐다. 4일 공개된 더기버스 기부자 명단에는 김병수·김순분·전종복(부부)·김애식·김은진·김진만·나태주·박선우·박윤규·정복수·한승우 등이 포함됐다.

‘더기버스50’은 초고액기부자나 유명인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평범한 기부자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다. 중앙

일보 공익섹션 더버터와 비영리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위크(Pie Week)’의 일환이다. 파이위크 참여 단체들과 전문

가의 추천을 받아 내부 기준에 따라 매년 50인을 최종 선발한다. 이를 통해 기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 는 점을 알리고, 한국사회에 건강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40인의 기부자를 발표했으며, 남은 10인은 더버터 지면과 파이위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선정에는 ▷지속성 ▷태도 ▷스토리 ▷영향력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금액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중시하며, 다양한 삶과 나눔의 방식을 고르게 담아내는데 초점을 둔다.

올해 ‘2025 파이위크’ 캠페인에는 23개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선월드 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컴퍼션, 한국해비타트, 함께일하는 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훌트아동복지회(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최지은·문일요·박선하 더버터 기자

» 8면 ‘더기버스50’으로 계속

Inside

동반성장, 전략이 아닌 ‘철학’

C2

재난시대, 기업 사회공헌의 역할은

C3

네팔 폐기물 노동자에게 선물한 장화 한켤레

C4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5가지 조건

C5

‘제2회 사회적가치 페스타’ 현장

C6

나태주 시인 인터뷰

C7

‘한국의 기부자들: 더기버스50’ 선정자들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er.org
02-3789-7861

“동반성장, 전략이 아닌 ‘철학’입니다”

고윤주 LG화학 CSSO 전무 인터뷰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리키는 용어다. 사회공헌 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곳이 CSR팀이다.

기업 내부에서 CSR팀에 대한 인식은 대개 둘 중 하나다. ‘좋은 일’하는 부서, 혹은 ‘돈 쓰는’ 부서. 생산을 하거나 매출에 직접 기여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눈치도 많이 보고 입지도 약한 편이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도 사회공헌 예산이다.

지난달 13일 여의도 LG화학 본사에서 만난 고윤주(57) CSSO 전무는 정반대로 말했다. “CSR팀은 좋은 일 하는 부서도 돈 쓰는 부서도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부서죠.”

- LG화학의 CSR팀 이름이 ‘글로벌 CSR팀’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LG화학 CSSO(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로 취임한 뒤에 이름을 바꿨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국내 사업장에만 국한될 순 없으니까요. 특히 LG화학은 매출의 70%가 해외시장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기업이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죠.”

- 해외로 CSR을 확장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배터리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을 채굴해야하는데, 일부 생산지에 ‘아동노동’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걸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적해야 합니다. 직접 현장도 가고, 협력사에서 약속으로 받고,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2차, 3차 공급망까지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 CSR팀을 주요 부서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력과 동시에 책임도 함께 생겨나죠.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존중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CSR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 글로벌 CSR팀이 운영하는 ‘대담해’라는 유튜브 채널도 화제인데요.

“CSR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다문화, 마음건강, ESG 등 공익을 주제로 전문가와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죠. 임직원들이 ‘대담해’를 통해 사회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글로벌 CSR팀의 업무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고윤주 전무는 “LG화학 CSR의 중심에는 ‘동반성장’이라는 큰 철학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이 철학은 기업의 가치사를 전반에 걸쳐 상생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글로벌 CSR 선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동반성장을 전략이 아닌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요.

“LG화학의 협력사가 국내에만 1000여 곳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더 많아요. 우리 혼자서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협력사와 함께 만들고 시장도 함께 개척해야 하죠. 동반성장은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한 지속해야 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고윤주 LG화학 CSSO 전무는 “CSR팀은 기업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부서”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 동반성장으로 상도 받았다고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LG화학의 동반성장 철학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이죠. 협력사를 단순 계약관계가 아닌 공동 성장의 파트너 이자 동반자로 대우한 게 핵심입니다.”

- 협력사와 신뢰 관계는 어떻게 구축하나요.

“간단합니다. 거래를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협당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죠. 동반성장에 대해 협이 우수를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신

뢰를 쌓고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페어하는 게 동반성장입니다.”

-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요.

“펀드를 두 개 운영하는데요. ‘ESG 펀드’와 ‘상생펀드’입니다. ESG 펀드는 협력사가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등 ESG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하도록 시중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상생펀드는 연구개발, 해외 진출 등 전반적인 성장을 돋는 자금이에요. 둘 다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일이네요.

“왜 저리 대출을 해주느냐, 비용을 쓰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협력사가 잘 성장하면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 당장은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에너지 동반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탄소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탄소를 줄여도 협력사가 부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제품 전체 탄소량이 높아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줄이는 법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거나 친환경 설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고, 동반성장은 같이 역량을 강화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선사업과 달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동 대응입니다.”

고윤주 전무는 “동반성장을 비롯한 CSR 활동이 앞으로 모든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의 의미와 가치를 LG화학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회에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세상을 바꾸는 11개의 제안 ‘2025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개최

23일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진행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업 사회공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만남의 장인 ‘2025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가 오는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다.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협력 파트너를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소셜벤처·사회적기업 등 임팩트 조직이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모색하는 기업과 매칭된다.

매해 200여 곳의 공공기관과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혁신 조직이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공헌센터와 더버터가 주관하며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고려아연·예금보험공사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총 11개 조직이 무대에 올라 사회공헌 사업을 제안한다. 환경·교육·문화예술·아동·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사업제안팀으로는 ▶다시입니다연구소



지난해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 참여한 사업제안팀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사업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더버터포토]

▶피플즈 ▶레베티그리다 ▶도만사(도시건축연구소) ▶와이비에스에듀 ▶사단법인 느린소리 ▶에이드린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사단법인 행복한출생든한미래 ▶가재울청소년센터 ▶잠수함토끼콜렉티브 등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각 단체의 사업 내용을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우수 사업제안팀 5팀

을 선정해 시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300만 원) ▶iM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200만 원) ▶예금보험공사장상(200만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10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에서 생중계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bit.ly/25csrpartnersday)에서 하면 된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편집장 칼럼

선량한 집착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재단의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20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소아마비’를 사실상 종식 단계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1988년 35만 명이던 소아마비 환자는 2023년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다. 하나의 문제를 완전히 뿐만 아니라 공동 대응입니다.”

고윤주 전무는 “동반성장을 비롯한 CSR 활동이 앞으로 모든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의 의미와 가치를 LG화학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회에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에서 빌 게이츠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 ‘나의 새로운 데드라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2045년까지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개인 재산과 기존 재단의 자산까지 포함 향후 20년간 약 2000억 달러(280조 원)를 더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을 다 마무리한 뒤 2045년 12월 31일자로 게이츠재단은 문을 닫는다.

끝내 포기를 모르는 선량한 집착들이 세상을 바꾼다. 빌 게이츠의 다음 목표는 말라리아 종식. 언젠가 후대 사람들이 말라리아라는 단어를 보고 ‘말라리아? 그게 뭐야?’하고 묻는 게 그의 꿈이다.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이어 완성할 것이다.

의료현장·심리상담·환경보호…돕는AI로 여는 사회혁신의 미래

1면 '돕는AI 컨퍼런스'에서 계속

심리상담 분야에서도 AI는 전문가의 동료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이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카카오와 협력해 심리상담 AI(가칭 '클레이어 AI')를 개발 중이다. 클레이어AI는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체득한 상담 기법인 치유의 암묵지(implicit knowledge)를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어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실험이다. 정혜신 박사는 상담을 '말로 하는 수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수술이라는 것은 정확한 목표가 있는 행위"라며 "상담 역시 정확한 목표에 최단 시간, 최단 경로로 달는 질문과 관계 맷기를 성공해야 내담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할 때 나오는 모든 반응에는 이유와 논리가 있는데, 이를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이라며 "정신분석 훈련을 받은 AI 모델이 나온다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하듯 심리상담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 가치 페스티벌'에서 '돕는 AI 컨퍼런스'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카카오임팩트]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개발의 문턱을 확 낮췄다. 전문 개발자만이 아니라 현장의 비영리활동가부터 사회복지사, 간병인, 보호자까지도 손쉽게 프로그램 태입을 만들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AI가 덜어줬다면, '무엇을 바꿀지'에 대해 질문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카카오임팩트가 '질문과 기술이 만나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1년간 사회혁신가와 IT 전문가를 연결하는 '테크포임팩트'로 48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돋는AI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테크포임팩트랩(LAB)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사회혁신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드론비전 기술을 개발하는 한서우 B GARAGE 엔지니어는 "기술 솔루션 만드는 입장에서 일반기술과 돋는기술 만드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사회문제 해결 기술은 데이터 수집이 어렵거나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난도가 높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할지 훨씬 더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입양과 파양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는 "막연히 AI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은 버려야 한다"며 "어떤 변화를 만들지, 이게 기술이 필요한지,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지, 인식

이 바뀌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AI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돌봄 문제가 그렇다.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돌봄은 자동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에게 투약을 쟁겨주고, 노인을 곁에서 돌보는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지만, AI는 사람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가 매일 수천 명에게 발송하는 인지훈련 메시지를 AI가 전송·채점하면, 직원들은 그 시간에 환자 상담과 보호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 단순 업무를 걷어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윤 테블브랩스 CSO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건강·정신·생활 전반을 세밀하게 맞추는 일"이라며 "치매 환자마다 증상과 맥락이 달라 일률적인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때 AI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초개인화다. 생활 리듬에 맞춘 알림, 선호 활동에 맞춘 관제,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대화 스크립트까지. 허당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들은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초개인화 서비스는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 역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며 "돌봄의 목표는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돋는 방향을 띠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돕는AI 생태계에 투자하라

돕는AI가 단발성 파일럿을 넘어서려면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영비와 유지보수 책임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증명된 솔루션을 다른 지역 혹은 기관으로 확산하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나온다.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무브먼트에 투자하기'의 무대에 선 폴 밀러 베스널그린벤처스(BGV) 대표는 기술로 사회를 바꾸는 소위 '테크포굿'(Tech for good) 기업에 투자한다. 현재 5000만 달러(약 7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벤처펀드 운용하면서 돋는기술을 보유한 기업 141개에 투자했다. 밀러 대표는 "기술의 발전으로 수만 달러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투자자들도 작은 투자로 여러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영국의 '닥터닥터(DrDoctor)'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활용해 환자 예약, 알림,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실제 1만파운드 투자로 정부 예산 1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 '페어폰(Fairphone)'

사례도 소개했다. 바스 반 아벨 대표는 10여 년 전 스마트폰이 보급될 당시 제조 공급망에 약 40가지 광물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광산업 공급망의 노동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폰을 개발했다. 현재 페어폰의 연간 수익은 5000만 달러(약 700억 원),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들도 페어폰 인증을 받은 광산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임팩트 스타트업은 성장률과 사회적 효과가 맞물릴 때 비로소 생존력이 생긴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날 대담에 함께한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도 "AI 돌봄,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같은 영역은 사회적 필요와 시장 기회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임팩트 투자는 자선이 아니라 고성장·고임팩트의 교차점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십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은 "사회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보자고 재단에서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동참할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435명의 IT전문가가 재단의 돋는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나섰다"며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기술 자체보다 '누군가를 돋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돕는AI'에 대한 논의가 담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재난 시대, 기업 사회공헌의 역할은?

제3회 넥스트CSR포럼 24일 개최

기업 사회공헌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제3회 넥스트CSR포럼'이 오는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다.

넥스트CSR포럼은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더버터 주최 행사다. 이번 3회차 포럼의 주제는 '재난 시대, 기업 사회공헌의 역할'이며 디캠프가 후원한다. 기후변화로 수해·산불·가뭄 등 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단순 기부금 전달을 넘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펼칠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기업 재단, NGO, 스타트업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이 귀 기울여야 할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재난구호 전문 NGO 더프라미스의 김동훈 상임이사는 '반복되는 재난, 기업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를 주제로 변화가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 요소를 짚는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회공헌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두 주체가 협력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한다.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은 '임직원 자원봉사가 재난현장에서 환영받는 방법'에 주제로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공헌 트렌드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경주 KCO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부장은 KCOOC에서 진행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강연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포럼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 페이지(bit.ly/NEXTCSRFORUM3)에서 오는 19일까지 할 수 있다. 문의는 '넥스트CSR포럼' 사무국(02-3789-7863)으로 하면 된다.

넥스트CSR포럼 (9월 24일, 마포구 프론트원)

| 시간 | 프로그램 |
|-----------------------------|--|
| 14:00-14:10 | 행사 소개 |
| <세션1> 현장의 목소리 | |
| 14:10-14:30 |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반복되는 재난, 기업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 |
| 14:30-14:50 |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레인버드지도 대표) "사회공헌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만났을 때" |
| 14:50-15:10 |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임직원 자원봉사가 재난현장에서 환영받는 방법" |
| 15:10-15:30 | 나영훈 포스코홀딩스 사회공헌실 상무보 "호주 재난대응 시스템에서 얻은 교훈" |
| 15:30-15:40 | 휴식 |
| <세션2> 재난대응의 미래 | |
| 15:40-16:00 | 신재민 현대차그룹 CSR기획팀장 "기후재난시대,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
| 16:00-16:20 | 이경주 KCO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부장 "대규모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해외 기업들" |
| 16:20-16:40 | 최지은 더버터 기자 "재난 대응 기업의 사례와 전망" |
| 16:40-17:00 | 패널토론 및 Q&A |
| 17:00-17:30 | 자율 네트워킹 및 폐회 |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반차레단다'에는 수도 카트만두 권역의 모든 쓰레기가 모인다. 폐기물 수거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을 찾는 폐기물 노동자들이 '쓰레기산'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바그마티=문일요 기자

'쓰레기산' 오르는 네팔 주민들… 장화 한 켤레로 시작된 변화

국제풀씨 이야기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

초로의 여인이 낡은 앞치마를 둘러맸다. 별이 드는 곳에 널어둔 장갑을 양손에 끼고, 이어 고무장화를 신었다. 힐끗 눈을 흘기고는 무심히 회색 진흙 길을 따라 올랐다.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27km, 차량으로 2시간 가까이 달려야 달는 산악 지대. 카트만두 권역의 유일한 쓰레기 매립지 '반차레단다(Banchare Danda)'에는 도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인다. 소위 '쓰레기산'이라 불리는 이곳이 여인의 일터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매립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다. 8월은 우기(雨期)지만, 오전엔 맑고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다. 밤에 온 비로 비포장도로는 질퍽였다. 그 길 위로 쓰레기를 실은 덤프트럭이 줄지었다. 지역 내 18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하루 1200t. 트럭들은 매립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정차한 뒤 쓰레기를 쏟고 다시 내려갔다.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과 폐기물 악취가 코를 찔렸다.

쓰레기산 곳곳에는 사람들이 허리 숙여 무언가 찾고 있었다. 매립지 운영관계자들은 이를 '비정규노동자(informal waste pickers)'라고 불렀다. 쓰레기 더미 속 쓸만한 물건을 찾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다. 고철은 1kg당 15루피(약 150원), 의류는 20루피(약 200원)를 쳐준다고 했다. 한 달 꼬박 일하면 1만루피, 우리 돈 1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지독한 가난 탓에 쓰레기산을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이다. 네팔 정부가 매립지 반경 2km 안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일 4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른다. 정부 당국은 이를 막아서지도, 지원하지도 않는다.

한국에서 온 변화의 마중물

네팔의 비영리단체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이하 칼파바티카)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매립지 노동자들에 주목했다. 매립지에는 플라스틱부터 비닐, 폐의류, 음식물, 의료폐기물까지 한데 뒤섞여 있다. 자치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날카로운 폐기물에 피부가 긁히고 찢기는 사고를 빈번하게 겪는다. 디파 라마 칼

파바티카 대표는 "매립지 언덕 아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폐기물에 파묻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현장은 위험하다"며 "개인보호장비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비를 지급하고 교육하는 일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칼파바티카의 활동은 2022년 재단법인 '숲과 나눔'의 글로벌 시민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국제풀씨(GSG)'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활동비 3000 달러(약 410만원)가 마중물이 됐다.

환경과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칼파바티카는 자료 조사부터 시작했다. 폐기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칼파바티카 조사에 따르면, 반차레단다 매립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평균 471명이다. 이 가운데 60%가 여성이고, 절반이 넘는 56%가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소 근무 기간은 1년,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은 18년으로 조사됐다.

칼파바티카는 다음 단계로 안전부츠를 만들었다. 신발끝에 강철 토탈을 씌워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고강도 미끄럼방지판으로 발바닥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기후를 고려해 건기용과 우기용을 따로 구분했다. 건기용은 방화 기능을 넣은 대신 목을 짧게, 우기용은 방수 기능을 강화하고 목을 길게 설계했다. 그렇게 만든 안전부츠를 여성 노동자 50명에게 나눠주고, 피드백을 수집하면서 안전교육과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라마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간이 돈과 같기 때문에 좀처럼 교육에 참여시키기 어려웠는데, 장화 한 켤레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안전장비 지급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술·금

융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 프로젝트에서 법제정 논의까지

이듬해에는 도심의 폐기물 노동자 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사업 대상자는 카트만두 내 자치구인 나가르준시.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 노동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수거 한다. 폐기물 분류는 주로 차량 내에서 이뤄지는 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상처나 부상이 잦은 편이다.

매립지의 비정규노동자들과 달리 폐기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지만, 저소득가정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주 6일 일하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교대근무한다. 칼파바티카는 직업안전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했다. 또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나가르준시의 청소 노동자 사누마야 타망은 평소 청소 노동자로 살았다. 22일 폐기물 업체 '넵세 맥' 사무실에서 만난 타망은 "칼파바티카를 만나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응급 처치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교육받았다"며 "값비싼 의료비 탓에 미뤄오던 건강검진도 했다"고 말했다.

전에 없던 비영리 활동에 공공기관도 적극 협조에 나섰다. 수실라 아드하카리 카트만두자구 나가르준시장 권한대행은 "해외 재단의 도움으로 폐기물 관리와 노동자를 지원한 첫 사례라 행정 영역에서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단체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나 협업 문의가 온다"고 덧붙였다.

칼파바티카는 현재 나가르준시의회를 통해 폐기물 관리와 노동자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당국과 이어가는 중이다. 사미르 타파 칼파바티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자치구 내 관련 법령이나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작은 씨앗, 글로벌 펀딩으로 자라다

작은 실험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는 물꼬가 트이면서 속도가 붙었다. 칼파바티카는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GSG 지원을 받은 직후 UNDP(유엔개발계획)로부터 2만 달러(약 28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청년 기후단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공모 '청년기후솔루션(Youth4Climate Solutions)'에 선정되면서다. 최근에는 UN 내 이주아동지원 플랫폼 MYCP(Migration Youth and Children Platform)의 마이크로그랜트 사업에 지원해 750유로(약 120만원)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냈다.

지원금이 늘면서 사업 분야도 넓혔다. 지난 7월에는 폐기물 노동자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교육을 열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적금도 보험도 모르고 살던 폐기물 노동자들은 반겼다. 시의회 앞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폐기물 노동자들을 초청해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개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는 숲과 나눔의 GSG 마지막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GSG 지원은 총 3회 받을 수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마 대표는 "노동자들의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건강할 인카드'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소규모 지원금을 활용해 폐기물 노동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라고 했다.

장재연 숲과 나눔 이사장은 "저개발 국가의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초기 단계에서 외부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렵다"며 "지역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성장해 온 칼파바티카 팀은 국제풀씨(GSG) 사업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네팔은 지금까지 총 136개 지원팀 중 11개 팀이 선정된 나라로, 앞으로도 풀뿌리 역량을 키워가는 훌륭한 단체들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트만두·바그마티=문일요 더버터 기자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 활동가들이 매립지 노동자에게 안전부츠를 전달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안전부츠를 신고 일하는 폐기물 노동자들.



[사진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

변화 만드는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다섯 가지 조건

공공기관 사회공헌 가이드

‘공공기관 사회공헌’이 시험대에 올랐다. 단순 기부나 보여주기식의 활동은 통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과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의 동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공공기관 사회공헌은 일회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서 “사회공헌을 잘 설계해 수행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 31개 중 연간 기부금 지출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44억6788만원) 이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238억5810만원), 강원랜드(204억4624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46 억7067만원), 한국서부발전(141억5328만원), 한국가스공사(132억8921만원), 한국남동발전(116억 1196만원), 한국남부발전(113억4086만원), 한국수력원자력(98억2251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6억2286만원) 순이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공기관들의 사회공헌 전략 수립 작업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업(業)과 연계된 사업을 설계하고, 정책과 현장을 잇고, 전략과 브랜딩을 확보하는 사회공헌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더버터는 경영평가의 사회공헌 평가 기준과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공공기관이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알아봤다.

1. 기관의 핵심 역량과 연결이 되는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은 기관의 설립 목적, 업(業)의 특성과 직결될 때 힘을 발휘한다. 일시 후원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이 에너지 복지, 안전, 환경 등과

사회문제를 연결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단순 기부 이상의 임팩트를 남길 수 있다. 반대로 기관 정체성과 무관한 활동은 중복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일례로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운영하며 에너지 복지와 업(業)의 특성을 연결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난방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한 모범 사례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3083개소, 이를 통해 약 7억8000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2. 국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이 주로 브랜드와 마케팅에 연결된다면, 공공기관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과제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본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청년부터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 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90억8100만원을 투입해 총 217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고용 확대라는 국가 정책 과제를 제주 지역 현장에서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

정책은 거대 담론으로 머물기 쉽지만 공공기관이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 주민과 맞닿으면 정부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기여다.

3. 전략이 있는가

사회공헌도 경영 활동의 일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체계가 필요하다. 미션과 비전, 슬로건을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전담 조직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생협력처 내 사회공헌부라는 전담 부서를 두고, 올해 기준으로 직접 지출만 120억원을 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예산 규모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질적 성과를 뒷받침한다.

4.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가

사회공헌은 ‘얼마를 썼는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로 평가돼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는 잊히지만, 장기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 뿌리내

리고 변화를 만들고 확산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부터 12년째 전국 골목길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안심가로등 플러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 84개 지역에 총 3420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차여행 프로그램 ‘해피트레인’도 대표적인 장기 사업으로 올해로 20년째 지속중이다.

사업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로 입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예컨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가로등 설치가 실제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는지, 아동돌봄 사업이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때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5. 브랜딩이 되는가

공공기관 사회공헌은 결국 기관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 현재 공공기관 중에는 아직 뚜렷이 브랜드화된 사업이 없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22년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강원랜드희망재단을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으로 통합 출범했다. 폐광 지역 개발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장학·멘토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폐광 지역 공동체 회복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가용자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탄생한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기관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잘 설계된 사회공헌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끌어내는 힘이 된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기부금 상위 10개 기관의 집행액은 1622억원이다. 규모만 놓고 보면 민간 대기업에 뒤지지 않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같은 돈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 수도, 단순한 지출로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곽채기 교수는 “국내 공공기관이 330개 정도 되는데 각각 사회공헌으로 20억~30억원만 써도 매우 큰 액수”라며 “이 돈이 사회발전을 위해 쓰이느냐 낭비되느냐는 공공기업들의 전략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시원·문일요 더버터 기자

공공기관 사회공헌 체크리스트

항목당 1점. 총점 10점 이상이면 ‘전략적 사회공헌’ 단계, 7~9점은 ‘개선 필요’, 6점 이하는 ‘기초 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역량·업(業) 연계

- 기관의 설립목적·미션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명확히 연결돼 있는가?
- 업(業)의 전문성을 살려 ‘우리만 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있는가?
- 소재지(지역사회)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돼 있는가?

2. 정책·현장 연결성

- 청년·고령·저출산·탄소중립 등 국가 과제와 직접 연결되는가?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주민과 협력하는 구조가 있는가?
- 정책 성과지표(KPI)와 사회공헌 성과지표가 같은 언어로 설계돼 있는가?

3. 전략·조직 체계

- 중장기 사회공헌 비전·슬로건·우선영역이 명문화돼 있는가?
- 전담 부서·임원 등 공식 조직이 존재하는가?
-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가?

4. 지속가능·성과 중심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5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 투입 예산이 아니라 성과(문제해결·삶의 질 개선) 지표를 관리하는가?
- 베이스라인·비교집단·공공데이터 등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가?

5. 브랜딩·시그니처화

- 국민·지역사회가 떠올릴 수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 사업이 있는가?
- 프로그램 명칭·심볼·스토리텔링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는가?
- 외부 인증·수상·평가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했는가?

‘지역에 필요한 일이면 뭐든 한다’ 재난대응·치매예방 맞춤형 나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울산 울주군 주민들에게 지난 7월은 고통의 시기였다. 3주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서부지역에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했다.

동시다발로 일어난 재난상황 수습에 가장 먼저 나선 건 지역 기업들이다. 울산에서 제련소를 운영하는 고려아연은 생수 4만 병을 확보해 단수 피해 지역에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성금 5억원을 내놨다.

고려아연 사회공헌의 특징은 울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일이면 뭐든 한다’는 점이다.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1사 1시설 온기나눔 결연’을 비롯해 장학금, 주거환경개선, 건축봉사, 임직원 플로깅, 한부모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연간 영업이익의 1% 상당인 60억~80억원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830억원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1974년 창립 당시부터 기업 이념을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로 설정해왔다. 최윤범 회장 역시 이러한 창립 이념을 계승하며, 기업 활동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 왔다. 덕



지난 7월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2025 흑서기 에너지세이브 캠페인’ 물품 전달식이 열렸다. [사진 고려아연]

분에 고려아연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핵심 가치이자 경영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임직원 모두가 실천하는 공동의 약속으로 발전해왔다.

지역사회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노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이주배경 아동 지원이 꼽힌다. 울산 지역의 빠른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 쟁기애에 나선 것이다. 올해부터는 치매예방세트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이주배경 아동 지원사업 역시 이주 배경 아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로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꾸

준히 기부해 오던 것에서 이주배경 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과 진로탐색 활동으로 확장했다.

이 밖에도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나눔, 김장 봉사 등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러한 성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울산시와 협력해 ‘1사 1시설 온기나눔’ 민관봉사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장애 아동 보육·재활치료 시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울산시 공무원과 임직원,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 기업과 공공,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어진 폭염에는 ‘흑서기 에너지세이브 캠페인’을 통해 서큘레이터, 네뷸러 등 흑서기 지원 물품을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을 찾아 삼계탕과 제철 과일을 제공했다. 캠페인 과정에서 발굴된 수혜자들은 별도로 결연을 맺어 ‘희망풍차 결연 세대 물품 지원사업’으로 이어간다. 연간 7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14년째 지속하고 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임직원들도 진심이 됐다. ‘지역을 위해 함께 나서자’는 말이 사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기획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는 본사를 포함해 서린정보기술, 케이지트레이딩 등 계열사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창립 이념인 ‘국가 발전에 기여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치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철학은 회사의 미션으로 발전해 다양한 원료와 에너지원을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데 실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혁신 칼럼

재즈처럼 연주하는
'개방형 사회혁신'김정태
MYSC CEO

"앞으로 승리하는 조직은 여러 재즈 앙상블의 집합과 같을 것이다." BCG 전 CEO 존 클락슨의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오케스트라는 악보와 지휘자가 중심이지만, 재즈는 상황과 호흡에 따라 음악이 달라진다. 사회혁신 역시 점점 재즈를 닮아가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메트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과 MYSC는 '오픈 소셜 이노베이션, 실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세션을 열었다. 기업, 정부, 스타트업이 경계를 넘어 문제를 정의하고 자원을 연결해 실행하는 이 방식은 완벽한 계획보다 즉흥성과 협력으로 해법을 찾는다.

세션의 대표 사례인 '마인드 기프트(Mind Gift)'는 중증 질환자 가족의 정신건강 위기에 주목한 사업이다. 지휘자 없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개방형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단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10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고, 스타트업 야타브엔터가 개발한 가상 상담 공간 '메타포레스트'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황애경 메트라이프재단 이사는 마인드 기프트 시작 요인으로 사회문제 정의에 대한 공감대, 열린 소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재즈에서 즉흥성은 임시방편이 아닌 최고의 역량이다. 정해진 악보가 없을 때 조차 연주자들은 서로의 소리에 반응하며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다. 세계적 학술지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도 '용기', '민주적 소통', '맥락 이해', '빠른 학습'을 협력적 혁신의 요인으로 꼽는다. 이는 '함께 일하기'를 넘어 '함께 창조하기'로 나아가는 길이다. 기업가정신 이론가 사라스 사라스바티는 목표보다 수단에서 출발하라고 조언한다. 완벽한 재료를 사는 대신 냉장고 속 재료로 요리를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가진 자원으로 '작은 실험'을 해보라는 것이다.

MYSC 장은희 그룹장은 개방형 혁신을 단체 레고 놀이에 비유했다. 각자의 블록을 모아 함께 조립하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 완성된다. 혁신은 정교한 설계도가 아닌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AI에게 묻는다면 '마인드 기프트' 같은 해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메트라이프, 중앙사회서비스원, 야타브엔터가 만나야 하는 이유와 즉흥적 협력의 가치는 인간만의 공감과 상호작용에서 탄생한다. 재즈 같은 이 혁신의 선율이야말로 AI가 알려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가 더욱 집중해야 할 사회혁신의 미래다.



1 '제2회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진행된 리더스서밋에서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개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제안' 세션 패널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1만명 찾은 사회혁신 축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다

제2회 사회적가치 페스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지난달 25·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기업·학계·시민 등 여러 주체가 모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사회적가치 연결 플랫폼인 SOVAC을 비롯해 SK텔레콤·현대해상·카카오임팩트·코이카·SM C&C·루트임팩트·임팩트스퀘어·코엑스·사회적 기업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한국경영학회가 후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행사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였다. 사회혁신 솔루션을 가진 기업과 기관 300여 곳이 각자 전시부스와 세션을 열고, ▶기후위기 ▶지역소멸 ▶디지털 격차 ▶저출생·고령화 ▶미래세대 지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기업 가치 평가, 5년 후 '뉴 노멀'이 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복합적인 사회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만들어 낸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성과를 낸 주체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적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초청 행사로 진행된 '리더스 서밋'에는 기업·시민사회·정부·미디어 분야 주요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해 최 회장이 제시한 '사회성과 측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신 글로벌 동향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사례도 공유됐다. 크리스티안 헬러 벨류밸런싱얼라이언스(VBA) CEO는 "국제기구와 금융 분야의 흐름을 보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회피화해

기업 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이 앞으로 5~8년 후 기업 경영의 '뉴 노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감축, '사전 인센티브'로 속도 높인다

이번 사회적가치 페스타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카카오임팩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40여 개의 전문세션과 스페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자의 사회문제 해결 사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탄소중립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환경보호크레딧(EPC)'을 주제로 한 세션을 개최했다. EPC는 미래 탄소감축 성과를 예측해 미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최태원 회장이 2021년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다. EPC가 실현되면 ▶기후기술 기업은 조기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탄소감축 성과에 기반한 수익을 확보하며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가까워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 탄소감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세션에는 정부, 투자사, 기후테크 기업 등 15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현재 탄소시장의 문제점을 짚고, EPC 제도의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명은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EPC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우선 클린에너지와 전환금융 분야에서 EPC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준제도권으로 편입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200조 자산, 사회투자로 움직여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 가능성과 제도적 장벽에 관한 세션을 열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사회

투자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공익법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의 모호성 ▶국세청 신고 부담 ▶기부금품법상 투자 목적의 모금 제한 ▶투자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과 박수봉 조록우산 복지사업본부장은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공익법인의 임팩트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YSC와 메트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금융 포용, 일자리창출, 포용적 헬스케어 분야 솔루션 기업을 육성하는 앤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인클루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소셜벤처들과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오픈 소셜 이노베이션을 실현해 왔다. 이날 세션에서는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사례가 소개됐다.

카카오임팩트는 행사가 진행된 이를 동안 '돕는 AI'를 주제로 11개 세션을 개최하고 환경·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I 기술을 소개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꼭 세계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며 "돕는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이번 페스타에는 이를 간 시민 1만여 명이 다녀갔다. SK하이닉스의 'AI 포 임팩트', 임팩트스퀘어의 '한국·일본의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사단법인 온율의 '법률가와 사회적 가치 조직, 함께 만드는 제도 변화' 등 세션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기술과 파트너십, 공감과 실행을 한데 모아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이라며 "기업·정부·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를 모아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비영리 인사이트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1975년, 공익법인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이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기부금 관련 사건이 터지면 여지없이 기부금품법이 소환되는 것처럼, 공익법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터지면 어김없이 공익법인법이 소환되지만 사실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공익법인법이 공의 현장에 미치는 실무적

인 영향이 어떤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이 국소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었던 터라 큰 기대는 갖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의외였고,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이 법이 소수의 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의외의 측면에서 모든 공익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다.

문제는 그 지배방식이 민주화된 현대 사회에 맞지 않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두었는데 이 논리로 보면 공익법인의 페르소나는 사회의 기

여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에 가깝다.

50년간 우리 사회는 강산이 다섯 번도 더 바뀔 정도로 달라졌다. 이제는 사익을 좇으려고 꼼수를 쓰는 법인보다는 깊장하 선생이나 빌 게이츠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선량한 기여자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일하려고 나서는데 이 법은 여전히 과거의 동굴 속에 남아 있다.

기부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고, 공의 목적 사업할 때 일일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인건비를 제한하여 좋은 인력들이 공의 분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공익법인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들도 법률관

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해 알게 모르게 법을 따르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이다.

5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공익법인법은 방치되어 있다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처럼 정치적으로 혼탁한 사건이 발생하면 혼령처럼 살아서 나오곤하면서 갈수록 일그러져 왔다. 이렇게 공익을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공익은 더 망가질 수 있다. 더 많은 민간의 공익 활동을 통해 좋은 사회를 가꾸기를 바란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공익을 확대하기 위해 거친 연구와 그 성과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적기이다.

“시와 기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부자들 나태주 시인 인터뷰

여든의 시인은 인천에서 꼬박 하루가 걸리는 탄자니아행 비행길에 올랐다. 에티오피아 경유만 8시간을 해야 하는 긴 비행이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저녁 6시, 나태주(80) 시인은 마침내 킬리만자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나 시인은 2018년부터 탄자니아 아루사주 은다바시 지역에 사는 소녀 네마 니코데무(15)를 후원해 왔다. 이번 여행은 아이를 직접 만나기 위해 준비한 일정이었다. 가족들은 고령에 긴 여행은 무리라며 만류했지만, 나 시인은 끝내 짐을 쌌다.

그는 월드비전 은다바시 지역개발사업장(AP)에서 니코데무와 그의 엄마, 세 살짜리 남동생을 만났다. 소녀는 처음 만난 나 시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후원자님 모습을 매번 상상하면서도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뵙게 돼서 기뻐요.”

7년 만에 만난 아이

나 시인과 니코데무는 13일 하루를 함께 보냈다. 편지로는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팔찌를 만들 어 나눠 갖기도 했다. 헤어질 때는 못내 아쉬워 눈물을 뱉었다. 일정을 마친 날 저녁, 아루사 시내 호텔에서 다시 만난 나 시인은 “여전히 마음이 일렁인다”고 했다.

-직접 후원아동을 만나니 아땠나요.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5년 전에도 아이를 만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이 터져 무산이 됐습니다. 늦게라도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니코데무와 함께하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슬픈 건 아니었는데, 어디에 숨어있다가 나온 눈물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웃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물보다 진한 것은 피, 피보다 진한 건 시간이라고요. 함께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인연은 소중해지기 마련이에요. 니코데무는 내가 오랫동안 후원한 아이예요. 멀리 있으니 만나기도 쉽지 않았죠. 그동안 아이의 키가 자란 것처럼 내 마음도 많이 자랐나 봅니다.”

-어떤 계기로 기부를 시작했나요.

“이전에는 문학계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주로 지원했어요. 그러다 알고 지내던 월드비전 관계자 추천으로 2018년부터 아이를 후원하게 됐어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싶어요. 오늘 직접 만나보니 니코데무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아이였어요. 가슴에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12명의 월드비전의 후원자들이 함께했다. 이들도 각자의 후원 아동을 만났다. 길게는 13년 동안 인연을 이어 온 사례도 있었다. 후원자보다 한참 작던 다섯 살 소년은 어느새 훌쩍 자라 청년이 됐다. 스와힐리어에서 영어로, 다시 한국어로 두 차례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부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만족만 좋다 보니 끝없이 하기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쁨이에요. 기부를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자신이 투자한 돈과 시간보다 더 큰 소득을 얻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내주고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면 헛된 일이 아니겠지요.”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

-나 시인에게 기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돈이 있으면 군시러워서 털어내고 싶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기부를 하면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외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후원은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시와 기부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세상을 바꾸지도, 돈을 벌지도 못해요. 대신 정서적인 만족을 주죠. 응원과 위로, 축복을 끝없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후원인 셈이에요. 내 시도 그렇게 바뀌어왔습니다. 나의 고백과 하소연을 담던 시에 언젠가부터 타인의 관점으로 본 세상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보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흔까지도 유명하지 않은 시인이었는데 지난 십여 년 사이에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고 화려해졌어요. 좋을 줄 알았는데 허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예순까지는 채우고, 그 이후는 비워야 해요.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겁니다. 내가 쓴 것만 나의 돈이지,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고 나면 내가 나눴다는 사실은 남죠. 그래서 다 내주고 죽는 게 가장 좋아요. 탄자니아에도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려 왔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나태주 시인과 후원아동 네마 니코데무. 나 시인은 2018년부터 아동결연후원을 이어왔다.

[사진 월드비전]

니코데무와 헤어질 무렵 나 시인은 의

아이는 의사가 돼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모범 답안이잖아요(웃음). 꿈을 꼭 이루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니코데무가 그냥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고. 그럼 됐지요.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나 시인은 이어 “아이는 의사가 돼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모범 답안이잖아요(웃음). 꿈을 꼭 이루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니코데무가 그냥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고. 그럼 됐지요.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루사=최지은 더버터 기자

흙탕물 마시던 탄자니아 마을… 물탱크 설치하자 출석률 올랐다

온다바시 마을 이야기

탄자니아 북부 아루사주의 은다바시 지역이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15년 전이다. 킬리만자로 국제공항에서 차로 2시간 반, 자욱한 흙먼지가 날리는 오프로드를 40분 이상 달려야 나타나는 이 작은 지역에 2010년 ‘월드비전 은다바시 지역개발사업장(AP)’이 들어섰다. 전액 한국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곳을 통해 현재 3400여 명의 아동이 한국인 후원자와 일대일 결연을 맺고 있다.

온다바시에는 21개의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에 약 7만3000명의 주민이 산다. 인구의 75%는 농업과 목축업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생활은 녹록지 않다. 농업용수와 식수가 부족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며, 주민들은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결국 건강이 악화하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월드비전은 한국의 개인 후원자, 기업, 종교기관과 함께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식수·위생 ▶보건·영양 ▶소득 증대 ▶아동보호 ▶교육지원 등 지역 자립역량강화 사



한국 기부자의 지원으로 ‘위생·안전 우수학교’가 된 은다바시 초등학교의 학생들. [사진 월드비전]

업으로 마을의 풍경은 점점 바뀌고 있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부터 8박 9일간 진행된 월드비전 후원자 방문 프로그램 ‘비전로드’에 동행해 달라진 은다바시의 모습을 들려봤다.

7만 리터 물탱크가 들어서다

“마을 입구의 작은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썼어요. 더러운 물이 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마하하 마을에서 만난 주민 세뇨리타가 말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하하 마을에서 식수

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은 자주 배가 아팠다.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보건소에 가져갈 깨끗한 물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

지난해 4월 마을에 대공사가 시작됐다. 월드비전은 ‘피니시 더 잡 포 워터(Finish the Job for Water)’ 프로젝트를 통해 한 번에 7만5000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와 태양광 펌프, 파이프라인을 설치했다. 정부가 행정 절차와 일부 비용을 지원했고, 마을 주민들

도 자발적으로 공사에 참여해 일손을 거들었다. 8달 후 보건소·학교 등 마을 곳곳에 수도가 설치됐고 주민들은 시간당 8000리터 넘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가격은 20리터에 30실링(약 16원)으로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근 마을 주민까지 약 2000명이 이 물을 사용한다.

마하하 마을 주민들은 한국에서 온 후원자들을 춤과 노래 공연으로 환영했다. 마을장 사무엘씨는 “수도 시설 덕분에 주민들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지금은 위생과 유지·보수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떠나지 않게 된 아이들

옆 마을 아얄라리오에서는 지난해부터 2000m²(약 612평) 규모의 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다. 월드비전과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협력해 물탱크와 관개수로, 비료, 씨앗 등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은 양배추와 양파, 감자, 가지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농업용수 인프라가 잘 갖춰져 매년 6~10월 찾아오는 건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을 수 있다.

월드비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종심기, 접붙이기 같은 현대식 농법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출석률은 98%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한국에서 온다바시 사업장은 2034년까지 운영된다. 퀘카 매니저는 “남은 기간에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재 40%에 달하는 영양실조 아동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조흔 문화를 개선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의 ‘후원을 멈추는 후원’ 슬로건처럼 외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루사=최지은 더버터 기자

도 실시했다. 데니스 레오 퀘카 월드비전은다바시AP 매니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올라 콩과 옥수수만 먹던 주민들이 다양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먹고 남은 채소는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온다바시 초등학교는 탄자니아 정부의 표창을 받는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위생·안전 우수학교’가 됐다. 급식을 위한 주방과 도서관, 컴퓨터실, 교무실, 깨끗한 화장실이 설치됐다. 화장실은 특히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을 크게 높였다. 현지 학교 관계자는 “이전에는 생리대를 처리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월경을 하는 여학생들은 자주 결석을 했다”며 “시설을 확충하고,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출석률은 98%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다바시 사업장은 2034년까지 운영된다. 퀘카 매니저는 “남은 기간에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재 40%에 달하는 영양실조 아동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조흔 문화를 개선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의 ‘후원을 멈추는 후원’ 슬로건처럼 외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루사=최지은 더버터 기자

일상에서 이어가는 나눔의 힘



팟캐스트로 시작한 기부 챌린지, 교민사회로 번져
김병수 기부자



연탄도 아껴 쓰던 알뜰 부부, 30억원 기부하다
김순분·전종복 기부자



농인 바리스타와 해외 농인 아동을 돋다
김애식 기부자



'봉사왕' 대학생, 엄마가 되고나서 한 일
김은진 기부자



말라위 사랑 10년, 교실·대강당·도서관 짓다
김진만 기부자

“100명이 모이면 10만원을 기부합니
다.” 소박한 약속이었다. 호주 브리즈번
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병수 기부자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사람을 모으고 기
부 챌린지를 진행한다. 온라인 재능기
부 형식으로 노래 이어부르기, 시 낭독,
대본 리딩 등에 참여하면 공약한 기부
를 실천한다. 그의 취지에 공감한 참여
자들도 기부금을 낸다. 그렇게 2021년
부터 지금까지 30회가 넘는 기부 챌린
지를 열었고, 누적 기부액은 4000만원
이 넘는다. 12시간 노래 이어부르기로
마련한 200만원으로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아동 연지(가명·9)에게 전자피아노
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나눔은 호주
한인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교민들과
함께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청년들
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마련했고, 튜브
키에 지진 성금과 호주 어린이병원 기부
도 이어갔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다. 병원 총무과장
으로 일했던 전종복씨와 아내 김순분씨
는 한 달 월급이 2만원이던 시절 2000원
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다. 부부는
수해로 젖은 연탄도 말려 쓰면서 세
아이를 키웠다. 그러던 중 가지고 있던
땅이 공공매입이 돼 큰 보상을 받았다.
부부는 그 돈에 대출을 보태 작은 건물을
마련했다. 30년 전 14억원이었던 건
물은 시간이 흐르며 값이 크게 올랐다.
2019년 아내 김순분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뒤 부부는 건물을 팔았다. 그리고
30억원 전액을 바보의나눔에 그대로 기
부했다. 올해로 전종복씨는 88세, 김순
분씨는 80세다. 김씨는 “돌 다 크게 아
픈 곳 없으니 그걸로 됐다”고 했다. “우
리는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서 큰돈이 필요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쓰면서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는 아
껴서 하는 겁니다.”

김애식 기부자는 목사이자 바리스타다.
그가 운영하는 교회와 카페는 조금 특
별하다. 교인 20명 중 3분의 2가 농아인
이고, 이 중 두 명은 카페를 운영하는 동
료로 함께하고 있다. 그는 과테말라 방
문을 계기로 카페를 차릴 결심을 했다.
“교인이 후원 아동을 만나러 간다길래
동했어요. 그곳에서 마리엘라를 만났
어요. 산 언덕배기에 다 무너지는 판잣
집에 사는 청각장애 아이였어요. 더 전
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김 기부자는 청각장애
아이들을 돋기 위해 교인들과 카페를
차렸다. 현재 카페 수익금으로 한국캠페
션을 통해 전 세계 청각장애 어린이 11명
을 후원하고 있다. 그는 “후원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며 “이 아이들이 자
라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른
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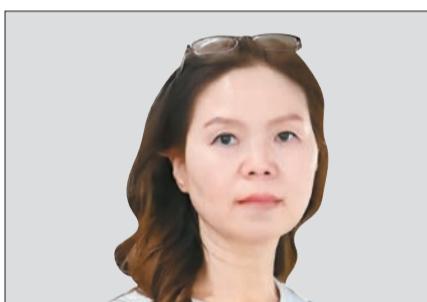
김은진 기부자는 “대학시절을 떠올리면
기부와 봉사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했다. 스무 살 새내기였던 1997년, 그는
한국해비타트의 필리핀 해외 건축봉사에
참여해 일주일 동안 집을 지었다. 기부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함께 봉사를 다녀온
지인들과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 기부자를 비롯한
대학생 30명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태
백까지 자전거로 달리며 1km마다 1만원
씩 기부를 받았다. 캠페인은 점점 유명
해졌고 기업 후원이 밀려 들어왔다. 당시
직원이 10명도 안 됐던 작은 단체였던 한
국해비타트도 규모가 점점 커졌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지금도 그는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29년째다. 중2, 초3인 두 아이의 이름으
로도 기부를 한다. 김 기부자는 “앞으로
아이들이 크면 함께 건축봉사를 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기부자는 2015년 기아대책의 1
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필란트로피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해 열린 모임
에서 본 작은 비닐축구공은 그의 인생
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아프리카 최빈
국으로 꼽히는 말라위의 아이들이 갖고
놀던 비닐을 뭉쳐 만든 것이다. “어떻게
든 이 아이들을 돋고 싶다”는 그의 결심
은 지금까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6년 말라위를 처음 방문했고, 한국
에서 열리는 축구대회 ‘호프컵’에 말라
위 팀이 참가할 수 있게 모든 비용을 후
원했다. 2017년에는 말라위 수도 히망중
고등학교에 교실 한 동 건축을 시작으
로 대강당 ‘김진만홀’을 지었고, 도서관
도 마련했다. 김진만홀은 말라위 대입
시험 MSCE를 치르는 공식 시험장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사회의 상징이 됐다.
그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기적
을 만들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끝없는 허기 대신 기쁨을 얻는 기부
나태주 기부자



아프리카에 우물을 선물한 영양교사
박선우 기부자



개발도상국에서 여는 치과 진료실
박윤규 기부자



일자리 위한 기부, 누군가의 존엄 지키는 일
정복수 기부자



피난민 2세대, 북한이탈주민 향한 14년 나눔
한승우 기부자

나태주 시인은 지난 2018년부터 월드비
전을 통해 탄자니아에 사는 네마 니코
데무(15)를 후원해 왔다. 해외 아동을
후원하기 전에도 나 시인은 오랫동안
꽃동네, 문학계 후학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 자신이 태어난 집과 주
변 토지를 기부했다. 서천군은 이곳을
문학인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 창작 공
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충
남 공주에 문을 연 나태주풀꽃문학관
에 평생 모아 온 그림 150여 점을 기증
했다.

나 시인은 “물질적 만족만 죄으면 끝
없는 허기만 남는다”며 “기부는 돈과
시간을 내고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만
족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기부는 결국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
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비우는 삶
의 가치를 강조했다.

“저로 인해 한 마을이 깨끗한 물을 마신
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데요. 기부
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수백 명을 살리
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하는 박
선우 기부자는 굿네이버스 기부를 통해
아프리카에 다섯 개의 우물을 기증했
다. 오래전 TV에서 본 장면을 잊지 못해
서였다. 땅을 파고 맑은 물이 확 치솟는
순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던 모습. 언젠가 아프리카 마을
에 우물을 선물하겠다는 결심을 2018년
행동으로 옮겼다. 결혼 30주년이었다.

우물 하나를 파는데는 약 1000만원
이 든다. 목표는 퇴직 전까지 총 10개의
우물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번은 현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감사 편지를 보
내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들 결석률이
줄었다고요. 월급 몇 달 안 받은 셈 치면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사는 치과의사 박윤규씨는
병원 문을 자주 닫는다. 환자들도 익숙
하다. 그가 수시로 섬마을, 교도소, 개발
도상국으로 봉사를 떠난다는 걸 잘 알
기 때문이다. 현장 운영을 하려면 최소
10명은 필요하다. 그래도 일 년에 네댓
번은 박 기부자가 직원들의 경비와 의료
물품비를 모두 부담해 베트남·네팔·스
리랑카·파키스탄 등지로 떠난다.

현장에선 원칙이 하나 있다. ‘찾아온
환자는 밤을 새서라도 본다’는 것. “줄
을 한나절이나 섰는데 앞에서 차례가
끊기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평소엔 병원·학교·교도소 등에 수시
로 기부금을 전달한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너스클럽 회원이다. “베풀어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충분히 돌
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부나
봉사 거리를 자꾸 찾아서 하게 될 수밖
에요.”

보험영업 일을 하던 정복수 기부자에게
1997년 IMF는 주변인의 삶이 무너지는
걸 수없이 목격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
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회사를 향한 배신감
을 느끼다가 자괴감이 밀려오고 자존감
이 내려앉는 과정, 결국 한 가정이 위태
로워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2010년 정 기부자는 35년 동안 근무
했던 첫 직장을 떠나 보험대리점 사업
을 시작했다. 그해 그의 눈에 함께일하는
재단의 일자리 캠페인 광고가 눈에 들어
왔다. 망설임 없이 바로 기부를 약정했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게도 기부를 독려했다. 정 기부자는 “사
람은 일을 해야 활력이 돈다”며 “다음
목표는 시니어 일자리에 더 많은 기부
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은 ‘라잇나우(Right Now)’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한승우 기부
자는 친가와 외가 모두 이북 출신인 피
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
터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을 돋고 싶
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의 바람은 열매
나눔재단에 정기후원을 시작하면서 14
년째 이어오고 있다. 월 10만원으로 시
작한 후원금은 두 차례 증액을 거쳐 현
재 월 25만원으로 늘었다. 작은 시작이
라도 지금 당장 해야 의미가 있고, 한 사
람의 변화가 나눔의 선순환을 만든다
는 그의 신념은 오랜 기부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돋는 재단의
사업 방향에 깊이 공감했다”며 “조금은
더디더라도 온전히 한 사람을 살려 놓
는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돋는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 파이워크 참여 기관

